

12장_인천 남구 학산문화원

삶은 즐거워

잘 익은 고구마와 할머니

오명순 할머니는 오늘도 쫄 고구마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오셨다. 춤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고, 상담도 하며 말벗이 되어 준 강사 선생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실한 것으로만 고르셨단다. 복지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간식을 축 내지 않으려고 굴 하나조차 손대지 않는 강사들의 마음을 알기에 할머니께서는 노란 속살이 먹음직스러운 고구마를 강권하신다.

사실 할머니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고구마를 쫄다는 것조차 무척 오랜만의 일이란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이를 뺏긴 후 20 년간 식당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할머니는 쪽방 생활을 면치 못했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말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경계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든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베풀고 나누는 기쁨도 몰랐다. 그러다 70 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게 됐고, 그 고마움을 달게 잘 익은 고구마로 전하고 싶었다.

오명순 할머니가 소외 노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건 우연이었다. 혼자 보내는 일상이 지겨워 복지관에 들렀다가 같은 연배의 할머니들이 뭔가 재미있는 교육을 받는다 하길래 무심코 따라

했던 것이 벌써 5 개월째다. 녀 달이면 끝난다던 프로그램이 강사들의 무료봉사로 두 달이나 연장됐다.

처음에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주말농장에 견학도 가고,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사가 부부갈등과 고부갈등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역할극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고초, 당초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의 기억, 전혀 따뜻하지 않았던 남편과의 갈등과 이별에 대해 처음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게 있어 인생은 부끄러움 그 자체

할머니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회한과 응어리는 그리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삶은 즐거워’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찾아내자는 의도를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삶을 즐기기에 어르신들의 고통은 너무도 컸다. 즐기기에 앞서 마음의 상처를 도려내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동안 어느새 할머니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제 즐거워지세요!

최연소 75 세, 최고령 93 세, 평균연령 85 세. 그러다 보니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고전 읽어주기’ 시간이었다. 옛날 이야기를 강사가 구술해주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워서 귀만

열어두면 되는 일이니 다른 건 필요 없었다. 병고와 외로움에 길들여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율동이나 연극이란 귀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율동부터 시작했다.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연극관람도 시도했다. 그러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든, 강사가 이야기를 하든, 누워서 꼼짝 앉으시던 할머니들이 일어나 앉으시고, 얼굴에 미소를 띄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좀 들어 봐

“할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알아 뭐 해! 싫어. 난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는 찾아왔지만 말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할머니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인색했다. 기껏해야 강사 한 사람만 불러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할머니, 여기 나오셔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세요.”

“싫어. 그럼 나 말 안 해!”

좀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강사들과 복지관 식구들은 자신이 맡은 시간 외에도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 나갔다. 게다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면서 어르신들의 수다는 조금씩 늘어갔다.

또 길게는 평생을, 짧게는 수십 년을 살아 온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해연’을 함께 관람한 후부터는 어르신들의 표정도 달라졌다. 가만히 앉아서

보던 비디오 영화보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외출해서 봤던 연극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할머니들은 자연스럽게 역할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고부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시집살이의 고통도 묻어 나왔지만, 좋은 시어머니 역할을 해보지 못한 아쉬움도 진하게 배어나왔다. 그리고 고통의 무게가 나보다 덜하지 않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일처럼 눈물 흘리게 되면서 할머니들은 강사에게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마음을 열어갔다.

이제 할머니들의 ‘침묵’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어르신들은 친해졌고, 힘들어 하는 친구를 걱정하고, 돌봐주고, 부축해주고, 격려하며 수업시간은 더욱 활기를 찾게 됐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강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열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 사이에 낯센과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 것 챙기기에 바쁜 삶을 살아오면서 내 것과 네 것을 가르는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스킨십 게임과 함께 마주보고 하는 활동이었다.

스킨십을 통해 서로에게 친화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고, 함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림을 그리고, 찰흙 만들기를 하면서 칭찬하기를 유도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이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할머니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 하거나 낯설게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어르신들은 네 것을 챙겨주고, 우리 것을 함께 만들고 나누고 싶어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혹은 골목을 서성거리며 하루가 너무나 긴 시간임을 확인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친구와 함께는, 아픔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 돼 주었다.

추석이라고 쉬면 어떻게 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90%가 홀로 사는 분들이다. 70 세가 넘는 분이 혼자 사는 가구는 단순히 통계 수치에 잡힌 1 인 가구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삶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며, 365 일을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명절이 돼도 어르신들은 즐거울 리가 없다. 아니 오히려 명절이 고통일 수도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 강사들을 붙잡고 불멘소리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추석이라고 수업을 쉬면 보름을 기다려야 하잖아.”

“내년에는 추석에도 쉬지 말고 이거 해야 돼.”

초여름에 시작된 프로그램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할머니들의 애정 공세를 받게 됐고, 어르신들의 기대는 기약할 수 없는 내년으로 이미 치닫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아쉬워

가을이 깊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대로 끝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계자들이 난처해졌다. 어떻게 무리를 해서 장소는 마련한다고 해도 무작정 프로그램을 늘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횃수를 거듭하면서 한 주가 다르게 진심으로 반겨주시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면 아쉬움에 두 손을

못 놓는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뺏긴 강사들은 자원 봉사를 약속했다. 2 개월 동안 프로그램이 연장됐고, 발표회도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들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갑돌이와 갑순이

11 월에 있을 발표회를 앞두고 마지막 총연습이 있는 날, 할머니들은 고운 화장을 하고 오셨다. 몇 년만의 단장인지 모를 화장 덕분에 모두들 새색시 같다. 먼저 만담 연습이 시작됐다. 자신의 대사가 적힌 커다란 종이를 들고 목청을 돋우던 어르신들은 마지막 연습이라고 해서인지 즉흥 연기 솜씨를 발휘한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바닥에 눕거나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던 분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교실이 떠나갈 정도다. 박수소리에 만담 연습이 끝나고, 이어서 발표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무용 갑돌이와 갑순이의 연습이 시작됐다.

프로그램 기획자와 복지관 선생님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오자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상자 안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를 위한 깨끗한 의상이 담겨 있다. 한바탕 분주하게 옷들이 옮겨지는데, 모처럼 입어보는 알록달록한 한복에 자태를 뽐내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갑돌이를 맡은 할머니가 의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셀쭉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크기가 맞지 않아 마음이 상한 할머니를 달래느라 강사가 땀을 흘린다.

하지만 노래에 맞춰 율동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연습에 몰입하신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꼬마신랑과 신부가 되어 의상과

죽두리까지 갖춰 쓰니 기운이 절로 나는 모양이다.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그 어떤 때보다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늦어도 12 월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신 앞에 놓여진 현재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깊고 가파른 삶의 골짜기를 넘어온 소외된 노인들에게는 자신과 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여력이 없다.

삶은 즐거워를 통해 어르신들은 적어도 마음의 상처를 드러낼 줄 알게 되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삶을 즐기기’에는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 지속돼야겠지만, ‘삶은 즐거워’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비록 파란 이파리는 다 떨어졌지만 한겨울 별관에서 은빛 가지를 빛내며 짹짹하게 서 있는 은사시나무처럼 인생의 12 월에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인천 남구 미추홀 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과 함께한 연극교육 ‘삶은 즐거워’

인천 남구학산문화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독거노인을 위한 문화 강습 프로그램,